

2017 년 8 월 6 일 주일 설교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Our God Who Listens and Speaks)

사무엘기상 3:1-9

1.

우리는 지난 주부터 구약성경으로 돌아가 한 주일 동안 사무엘기상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고, 신약성경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구약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400 여 년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둘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사이면서 또한 예언자였던 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 와싱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의 주제들을 던져 줍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중요한 영감을 던져 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다처제가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일부다처제가 구약성경에 나온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오해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일부다처제나 잔인한 살륙 같은 것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일부다처제는 죄성에 물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이 이기적 욕망에 기초하여 만든 불의한 제도였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부인 브닌나는 자식을 여럿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식이 없는 아내를 불쌍히 여겨 더 사랑하고, 자식을 둔 아내는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식 없는 아내를 괴롭힙니다. 브닌나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는 권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자비와 아량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주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점점 꼬여가서 한나에 대한 브닌나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한나의 심적 고통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2.

이렇게 삶의 상황이 점점 꼬여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한나는 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 났습니다.

가족들이 한 참 즐겁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 한나가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텅 빈 성막에 들어가 앉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한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합니다. 1 장 10 절에 보면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Cried bitterly”라는 영어 번역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순간이 있었지요? 마음 안에 쌓이고 엉켜 있는 생각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통곡이 곧 기도가 되지요.

성막 문간에 앉아 있던 제사장 엘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많이 늙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던 엘리는 낫술에 취해 주정하는 줄로 오해 했습니다. 온 몸을 떨면서 통곡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다가가 술을 끊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상 1:15-16)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비통하게 눈물 쏟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브닌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약자인 한나를 이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 주에 한국에서 또 하나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느 4 성 장군의 부인이 공관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병이 폭로하자 같은 사람에게 같은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은 그 장군 부부가 교회 장로와 권사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회까지 빠지지 않는 열성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힘 없는 병사들을 노예만도 못하게 취급했다니,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는 우리는 과연 눈빛으로, 말로 혹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눈물을 쏟게 만든 적이 없습니까? “나는 없다”라고 대답하신다면, 필경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마트나 식당에서 나는 모든 이에게 선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두려운 죄입니다.

한나의 대답에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찾고 있습니까?

아마도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오래도록 잊고 지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지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눈물 콧물로 마음을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매일 기억하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기를 선택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도의 자리 밖에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3.

한나가 하는 말에 엘리 제사장은 머쓱해졌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상황을 잘 못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민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삼상 1:17)

엘리 제사장은 그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제사장 생활을 통해 그것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울음을 그치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음식을 먹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이에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나에게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표정도 달라졌고 사람 대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먹는 등 마는 등 하던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삼상 1:18)

한나의 상황은 전과 동일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보셨고 들으셨고 어떻게든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 왔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브닌나가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브닌나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무엇이 한나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 때문입니다. 한나에게는 엘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것입니다.

오래 전 일이 기억납니다. 어느 댁에 심방을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댁의 꼬마가 문틈으로 저를 보고는 안에 있는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예수님 왔어!”

어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교우께서 제 옆 자리만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돌아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리 있어요. 이리 오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십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한나의 경우에는 이 믿음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뉘두리도 아니고 한풀이도 아닙니다. 답답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나중에 아들을 얻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기도문 중에 ‘기도할 준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기도로써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해주소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말씀드리는 영예를 받아들이기 전에 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러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한히 크신 분이며, 거짓 헌신이 통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이며, 마음 없는 제사를 가증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오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냉랭하고 형식적인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무 준비 없이 황망히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일에 쫓겨 혹은 쾌락에 이끌려 중도에 기도를 중단하고 망각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도우소서.

기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구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한나는 젖을 떼자 마자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끼고 살아도 부족할 아들을 어린 나이에 떼어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자랍니다. 언제라도 엘리가 부르면 뛰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지냅니다. 밤에도 제사장 곁에 있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자리를 깔고 잡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른 새벽에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른 일어나 가서 웬 일이냐고 물으니, 엘리는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잘 못 들었나 싶어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선잠에 들었나 싶을 때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다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엘리는 조금 짜증을 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뒤통에 흘린 것 같은 기분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습니다.

잠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다가 들은 것이 아니니 이번에는 틀림 없어. 제사장님이 나를 놀리거나 망령이 난 것이 틀림 없어. 이번에는 순순히 돌아오지 않겠어!’ 하고 다짐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 때에서야 엘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 줍니다.

가서 누워 있거나.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삼상 3:9)

사무엘은 그 대답에 더 어리둥절해 졌을 것입니다. 7 절에 보면 “이 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만나지 못했다” 혹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느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 눕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을 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다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히브리어 어법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특별한 애정이 담긴 부름입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성막에서 늘 제사 드리며 섬기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 차립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일러 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삼상 3:10)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차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임할 심판을 말해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엘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장차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사무엘은 낮 나간 사람처럼 되어 버립니다. 3 장 15 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내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 장의 후반부를 읽어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예언을 엘리 제사장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엘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엘리의 추궁에 어린 사무엘은 들은 그대로 예언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은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사무엘을 꾸짖을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삼상 3:18)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징계 받을 줄 알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러다간 큰 징계를 당할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에게서 예언을 듣고는 ‘아뿔싸! 올 것이 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자신은 그 처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5.

앞에서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고 우리의 사정을 말씀 드리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하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를 두 손으로 막고는 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 저자는 당시의 영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삼상 3:1)

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쉬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진실은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를 비롯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식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씀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은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앉아 계셔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나 들어 주고 다른 일은 참견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면서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그렇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첫 예언을 받은 이후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삼상 3:21-4:1)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데 집중했다면 기독교인이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회에 나가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만을 반복하지 않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면 사병들의 존경을 받는 장군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호흡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쏟아놓는 식의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매일, 자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울고 불고 할 일이 줄어 듭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어떤 분을 마주하는 것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영예로운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과연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그런 설렘으로 인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빛과 말과 행실에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부족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엘리 시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이 없어서 위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이 없어서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저의 위기이고 또한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혹은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호흡하듯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즐기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 중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에 우직하게 순종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원제: 말씀하시면)

김영범

주님 말씀하시면 - 내가 나 아가-리다 -

주님 뜻이아-니면 - 내가 멈춰서-리다 -

나의 가고서-는것 - 주님 뜻에있-으니 -

오주-님- 나 를이끄-소-서- 주님

뜻하 선 그-곳에 - 나있 기원함-니-다 -

이끄 시 는-대로 - 순종 하며살-리-니 -

연약 한 내-영혼 - 통하 여일하-소-서 -

주님 나라와- 그 뜻 을위-하여 - - 뜻하

- 오-주-님- 나 를이끄-소-서-

Copyright (c) 2003 김영범 .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속회자료> 2017 년 8 월 6 일 주일설교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Our God Who Listens and Speaks)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23 장(통 23)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사무엘기상 1 장과 3 장을 읽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 3)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 4)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6. 기도
 - 1)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바로 잡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 이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66 장(통 485)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